

<서평>

욕망, 어머니됨, 어머니노릇하기로 풀어낸 말레이시아의 기러기 가족

성정현·홍석준. 2013. 『그들은 왜 기러기가족을 선택했는가: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현장보고』.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 지 훈*

“그들은 왜 기러기 가족을 선택했는가?”는 사회복지학자인 성정현 교수와 인류학자이자 말레이시아 전문가인 홍석준 교수 부부가 최근 발간한 신작으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기러기 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그들의 삶을 동남아 지역학자이자, 인류학자, 그리고 사회복지학자의 시각으로 담아낸 책이다. 이 책은 그간 학술지에 게재한 세 편의 논문(성정현·홍석준 2009; 홍석준·성정현 2009, 2011)과 후속 연구 작업의 성과를 하나로 엮어낸 단행본이다.

이 책의 출간은 동남아시아 학계뿐만 아니라 교육학계 그리고 나아가 사회과학 학문공동체 전체에 반갑고도 좋은 소식이다.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다. 왜냐하면 이 책은 지역학자가 하나의 연구 집단에 대해 수년간의 보강 조사를 꾸준히 수행한 후 발간한 보기 드문 한글 단행본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글의 주제인 ‘조기 유학’과 관련한 학술 단행본도 보기 드물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독자들은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jhkim@inha.ac.kr, jeehkim@gmail.com

‘정말?’ 하고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조기유학을 실행해 본 혹은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으로 성과를 본 부모나 학생 본인이 쓴 ‘자서전적 에세이’나 유학 실용서는 꽤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책들은 서점에서 상당히 대접받는 위치에 있어 독자의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뒷면 날개를 보시라. 여느 책처럼 한을 출판사는 뒤표지 날개에 관련도서를 소개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허허실실 조기유학: 기자 아빠와 초등생 딸의 유학생생활 분투기』이다. 학자들이 선불리 단행본 작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이런 실용서와 경쟁하는 것이 내키지 않은 점도 일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두 저자는 본인의 연구 작업을 책으로 발간하는데에 용기를 필요로 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최근 동남아시아 조기 유학의 실태와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 설명하고, 2장에서는 동남아시아로 조기 유학을 떠나는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되는 부모, 자녀 그리고 가족의 다양한 동기들을 살펴보았다.

동남아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매력적인 조기유학의 장소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화 시대의 필수 요건인 영어, 그리고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중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면서 동시에 생활비와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 주부라는 미명 아래 잊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는 장소, 더불어 유교적 관념으로 인한 시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1) 영어로 쓴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 단행본은 조만간 출간된다(Lo et al. forthcoming).

3장과 4장에서는 조기유학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인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 됨/모성(motherhood) 그리고 어머니 노릇하기/모성실천(mothering)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 유학을 선택하는 부모/어머니의 개인적인, 가족 수준의, 그리고 사회적 욕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욕망’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이다. 자식을 세계화된 세상에서 글로벌한 능력자로 키우고 싶은 욕망, 학력/학벌 사회인 한국에서 뒤쳐지지 않게 키우고 싶은 욕망, 또한 자녀와 부모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부족한 성취를 자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현대인의 욕망은 핵가족화 시대 자녀의 교육에 ‘올인’하는 세태를 만들어 냈으며 급변하는 한국 사회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의 장점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쉽게 읽힌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저자가 이 책의 부제인 ‘현장 보고’식 글쓰기를 통해 두 부부의 현지 경험과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한 점도 한 몫을 한다. 둘째, 이 책은 학계에만 독자를 한정 짓지 않고 동남아시아 조기유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셋째, 게다가 ‘조기유학’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제이다. 저자가 3장과 4장에 걸쳐 지적하듯이, 조기 유학이란 학령기의 자녀를 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이 직접 실행했거나 “사회적 욕망”을 품으며 욕망해 봤음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지적하듯 조기유학은 1990년대 ‘도피성 유학’으로 보던 시각이 2000년대 들어서는 중산층 이상에게는 이제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이 바뀐(normalization: Lo et al. forthcoming, 2장)점도 한몫 한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서 연구참여자인 어머니와 청소년의 ‘유학 동기’, ‘현지에서의 생활 및 공부 경

함’, ‘현지 생활의 즐거움과 어려움’ 등 누구나 한번쯤 궁금증을 가져 봤음직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주로 실려 있어 글이 어렵지 않게 읽히는데 일조한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있다. 저자는 ‘조사방법’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부록 1과 부록 2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²⁾ 단행본 부록에 이렇게 방법론과 연구대상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소개를 실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나³⁾ 요즘은 그런 책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반 독자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 과정을 자세히 드러내 보임으로써 지역학과 인류학 분야의 학문 후속세대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범이 될 것 같다.

확히지 이번 호의 출간을 앞둔 요즘 마스크에서는 연일 영훈 국제 중 입시 비리 사건을 전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대두되면서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명분과 개인의 사회적 욕구가 융합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조기유학의 선택을 고민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허가 하에 하나 둘씩 문을 연 국제중, 국제고의 설립은 이러한 사회적 세대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내국인의 입학이 인정되는 송도, 청라, 제주 등 몇 개의 ‘국제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들은 조기유학이 갖는 ‘기러기 가족’이라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물론 학생 1인당 약 오천만원쯤 들어가는 연간 학비와 부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은 아마도 소득과 재산이 우리나라 1% 이내에 들어야만

2) Ethnography를 문화기술지로 번역하는 것은 Ethnography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영어 원문을 한글로 옮긴다.

3) 그 예로는 참여 관찰 등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도시 슬럼을 연구한 사회학자 윌리엄 화이트(William Whyte, [1943] 1993)가 쓴 사회학의 고전인 ‘거리 모퉁이 사회(Street Corner Society)’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겠지만 말이다. 저자는 말레이시아로의 조기 유학이 앞으로
도 꾸준할 것이라 예상하는데, 나 역시 공감한다. 국내에서 국제학
교에 다닐 수 있으면 ‘기러기 가족’이 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의 대부분의 가족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닐 수 없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에
담을 수도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좀 더 다루지
못한 몇 가지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는 저자가 던지지 않은
질문과 관련 있다. 저자는 조기유학을 “왜 떠나는가?” 그리고 “왜
동남아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후
속 장에서 지적하는 대로 ‘저렴한 물가, 안전한 치안, 한국과의 근접
성, 영어와 중국어 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점, 꽤 괜찮은 학교 등’
조기유학지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이점은 조기유학 어머니가 몇 달
지나지 않아 액면 그대로 쉽게 얻기 힘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곧
깨닫는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남아에 남는가?” 그리고
“그들이 동남아에 남기로 한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리고
이는 (모성과 가족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도 던졌으면
어땠을까? 둘째, 욕망, 모성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슷한 주제의 내
용을 여러 장에 걸쳐 쓰다 보니 비슷한 구절들이 여기 저기 보인다.

저자가 지적하듯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기러기가족에 대해 앞으로
꾸준히 장기 추적 조사를 하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 이를
테면 조기유학생의 대학 진학 그리고 차후 사회 진출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⁴⁾. 또한 이 책을 모델 삼아 동남아지역의 다른 국가
에서의 조기유학 경험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후속 단행본이 나오
기를 기대한다.

4) 모델로 삼을 만한 이러한 종단 연구로는 교육사회학의 새로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Lareau(2011)의 책을 들 수 있다. 라로는 처음 연구를 수행하고 책을 출간한
후 10년 뒤에 인터뷰이를 다시 만나 심층 면접을 한 후 수정증보 제2판을 펴냈다.

<참고문헌>

- 성정현 · 홍석준. 2009. “동남아시아 조기유학 청소년의 유학 결정 과정과 유학 경험: 말레이시아에서 유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16(6): 71-102.
- 홍석준 · 성정현. 2009. “조기유학 대상지로 동남아시아를 선택하는 한국인 부모의 동기 및 사회문화적 배경: 말레이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4): 239-262.
- 홍석준 · 성정현. 2011.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생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및 ‘어머니 노릇’에 대한 인식과 의미.” 『동남아시아연구』 21(1): 1-48
- Lareau, Annette. 2011 [2003]. *Unequal Childhood: Class, Race, and Family Life, 2nd Edition with an Update a Decade La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 Adrienne, Nancy Abelmann, Soo Ah Kwon, and Sumie Okazaki (eds.). forthcoming. *South Korea's Education Exodus: The Life and Times of Early Study Abroad*.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Whyte, William Foote. 1993[1943]. *Street Corner Society: The Social Structure of an Italian Slu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